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순항'

무주군, 35억원 투입 연내 마무리... 깨끗한 물 공급 인프라 구축

무주군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단초가 될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연내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내년부터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실시간 수압계를 비롯해 스마트미터링, 재염소 투입설비, 정밀여과장치, 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 설비 구축이 마무리됐거나 연내 마무리된다.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은 수도물 적수(고인물)발생 문제 등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무주군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단초가 될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물 공급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무주군맑은물사업소 김광영 소장은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도공급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며 "향후 상수도 전 과정에 군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관리 체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3일까지 설천초등학교와 설천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정밀여과장치 2개소를 비롯해 수압감시시스템 등 25개소의 설치 완료 시점에 대한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국 유일 '황단대제' 봉행

103년 전통 진안 황단대제 열려

해마다 음력 8월 그믐에 열리는 황단대제가 지난 24일 진안 주천면 대불리 화양산 정상에 자리 잡은 황단에서 보존회 회원, 지방유림을 비롯한 수당 이덕영 선생의 후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월세 화양산 정산에서 수당 선생의 제자와 후손들이 모여 천국의 옥황상제 지극의 공자, 인국의 고종황제 3극을 모시고 국가의 안위와 문화 창달 및

조선왕조에 따른 자주독립을 염원하는 삼극제를 103년째 올리고 있다.

황단은 주천면 대불리 화양봉, 무릉리 선암봉, 신양리 제천봉, 정천면 갈용리 천황봉, 충남 금산군 두문봉, 파초봉, 유계봉 등 7곳에 산재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화양산 황단만이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날 초헌관으로 참석한 전춘성 군수는 "황단대제는 나라의 안위와 군민의 안녕, 풍요를 기원하는 우리 군의 전통적인 제례"이며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을 털어내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지 이용 실태조사 실시

무주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올해 7월말 기준에 농업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농지와 토지이용계획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된 농지, 토지대장상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최근 5년내 농취중 발급 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특히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 돼 온 농막·성토 관련한 실태조사와 태양광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경영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법 임대차

를 비롯한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를 집중 살핀다.

군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는 740ha(6,240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38ha(301필지)로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지난 23일 무주 나들리조트에서 개최된 '지역사회 의료사회 공헌사업 지원 정책 간담회'를 통해 장수군 의료사회 공헌사업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사회 공헌사업 발전 논의

장수군·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지원 정책 간담회 가져

장수군이 지난 23일 무주 나들리조트에서 개최된 '지역사회 의료사회 공헌사업 지원 정책 간담회'를 통해 장수군 의료사회 공헌사업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주관, (재)권정순재단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최훈식 군수,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박경우 원장, 임정운 부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실적 보고, 의료사회 공헌 사업 추진 방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훈식 군수는 "의료 취약계층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의료사회 공헌사업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7월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사회공헌 협약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한 후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유소견자 정밀검사 및 의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재)권정순재단은 이번 의료사회 공헌사업만 아니라 장수군 교육 발전을 위해 지난 23일 (재)장수군에향교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무주군이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가을철 버섯, 산약초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를 단속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가을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송이버섯과 산 약초, 더덕, 도라지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림복지과장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51명 투입)을 편성하고 국립림관리사무소, 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와 연계한 지도·단속을 펼치며, 6개 읍·면에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반과 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원 등을 활용한 단속반 30명도 투입했다.

군은 주요 등산로 24개소를 비롯한 임도 26개 노선, 임산물 불법채취 우려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

이다. 또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을회관과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재배지, 등산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복지과 산림보호팀 김상용 팀장은 "불법행위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불법채취가 예상되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에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82%가 산림지역인 무주군의 경우 산지 곳곳에 각종 버섯류와 산약초가 다양하게 자생하고 있으며, 등산객이 임산물을 무분별한 채취할 경우 농가 소득차질과 산림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임산물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버섯과 약초, 녹비, 나무열매, 덩굴류의 채취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해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도 지방재정 우수 사례 발표 2개 대회 우수상

진안군은 지난 23일 전라북도 주관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22년 지방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발표대회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두 대회는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심사를 진행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기법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 진안군은 재무과 최윤영(지방세 분야) 주무관과 기획홍보실 이주연 주무관(세외수입 분야)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기호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 및 징수기법과 신규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징수를 제고 및 재정지립도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소방서, 길 잃은 산악회 회원 13명 구조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지난 25일 오후 14시 48분경 진안군 정천면 구봉산에서 산악사고 구조 요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산속에 고립된 산악회 회원 13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A산악회에서 가을 산행을 위해 구봉산을 올랐다가 내려오던 중에 길을 잃고 두 시간째 고립돼 구조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이에 진안소방서 119구조대와 구급대가 출동하여 발 빠른 대처로 수색 하여 2시간 만에 구봉산 천황사 계곡 부근에서 발견했다.

오랜 산행으로 탈진증상이 오고 있는 등산객들을 구조해 혈압 및 맥박 측정 등 건강 체크까지 마치는 등 만전을 기했다.

오정철 서장은 "산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하산하지 말고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 표지판을 통해 구조 요청하는 것이 좋고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해 사고 없는 즐거운 산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